朝鮮日報

朝夕刊合六面
朝鮮日報(朝夕刊) 一個月先金 壹圓 六個月先金 五圓七十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金壹圓 四號活字 一行 金壹圓四十錢 特別欄 八號活字 一行 金貳圓 七號活字 一行 金貳圓 指定料 五號 每行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一二一 朝鮮日報社 振替口座京城一〇九九 電話 六一三、一四七三、一八七

論說

評壇漫筆 (三)

過去를回顧하면서

一

過去다고말하면 그지가업다 全世界歷史의無量한事實이 모다過去에屬하엿다 朝鮮人의지금外지의일도 모다過去다고볼밧게업다 야모든過去를지금말하고저아니하고 또말할수도업나 다만言論機關의當事者로서 言論機關을中心으로도 이에因襲잇는過去를 잠시간回顧하자함이지금의感想이다 日韓合併의局이다치고 朝鮮의運命이決定된後 朝鮮人의言論機關은모다閉鎖되엇다 帝國 皇城의兩新聞이閉刊되고 每日申報가買收되어넘어가고 眞正한意味로서의 言論機關은오롱으로 업서젓나 寺內氏의武斷政治가 全半島를蹂躪하야 二千萬朝鮮人의社會가 붐쒸진듯이잠잠하고 감감하든때에 朝鮮人은다만푸렁숨을내쉬고눈쌀을찝흐려처다보며 발곳을서겨드되고단엿다 그들에게는 自由다는것이업섯다 結社 集會 出版 言論할것업시 입한아 손한아 발곳한아 달삭할수업든 朝鮮人의社會는 참으로寂寞하엿섯다그들은自由업는天地에서 숨만혀쪽을것가탓섯다

二

어느덧한十年되엇다 歐洲의大戰亂은 全人類로하야금一大動搖를일으키게되엇다 失望과落魄의속에 다만彷徨과咀呪가잇슬뿐이든朝鮮人들은 一時에붐은일어난바잇섯다 已未運動이그것이엇다 이運動이當時世界弱少民族들의渴仰의的이되엇든『윌손』氏의民族自決主義에依하야 雄大한氣勢를도든것은勿論이지마는 全혀그에만原因하엿다고몰리는者잇슬진대 그는極히淺見者流가아니면 極히朝鮮人을侮蔑하는者일것이다그들은朝鮮人의 가슴속에뭉치고매친鬱勃하든不平이 十年을一期로서 可爲할機會를맛나김에一大爆發을이룸이다 窮巷僻村西夫愚婦에미츠기外지집혼밤에해불을켜고 목청것내지르든그들의부르지즘에는 확실히純眞한살기를求하는本能의衝動이잇섯든것이다 그리하야朝鮮의時局도 적지안케轉換되엇든것은事實이엇섯다

三

齋藤氏의文化政治란者가 시작되엇다 共同墓地가所謂民怨의一大原因이라는臆測等의妄言에依하야 私設墓地의規定이좀緩和되엇다는것이 一種의笑話가되엇고 實科敎育을學童에게課함이 또不平의一原因이라하야 그를만히修正하겟다는것이또識者의一評題이다 이러한것은모다小小한問題임으로 만히擧論할바아니지마는 엇지햇든人心을撫摩키爲하야 多少無用한施設外지도하엿다는것이 一評題가되는것이다 府面協議員制、비롯하야 道評議員의 選擧가든것이, 文化政治의產物이라고도할것이오 笞刑의廢止其他所謂『日鮮差別』의廢止를標榜하게된것等은 조흐나글으나또한文化政治의產物이라할것이다 그러나그中에도눈에띄도록좀달러진것이잇다하면그는部分的이나마結社 集會出版及言論의自由를許諾하엿다는것이그것이다 이것이다 이런事情에依하아 朝鮮人의文化啓發이얼마큼神益한바잇는것은 多言할바아니다 그러나그와同時에統治當局으로서도 이로因하야社會人心의傾向을알게업시살피고그에對한適宜한處置를베풀움에莫大한便利를어덧다 어느意味로는이러한自由의許與를격구로利用하야 彼等統治에裨補한바를이어것다할것이다

四

齋藤氏文化總督의政策을가추어 朝鮮에잇기는마친가지이엇섯다 다만水野 有吉 下岡밋 湯淺氏等이 次第로歷任하야政務總監의職을맛기는각각이엇고 赤池 丸山 三矢諸氏가 警務에當局하기도각각이엇다 政務總監의變動이 隱然內閣의變動이엇섯고 警務의首腦者의變動은또한朝鮮統治策의大部의變動을생기게하는것가타엿다 그는朝鮮의統治는 大部가警察行政에依하야左右되는感이잇는外에이다 集會 結社 出版 言論等의自由는 次第로壓迫되고또制限된다 武斷政治로의逆轉이라고할는지 依然히武斷政治이엇다고할는지 엇지햇든寺內氏의時代로뒤시거름치는것은事實이다 만흔自由란者보다絕滅케하고 全朝鮮으로보다시감감한天地를맨드는것도 한重大한試驗일것이다 다만그러타고만矣이歷史는嚴正한되푸리만하는것이라고는 筆者도斷言할수는업는바이다

墨西哥宗敎騷擾 政府側의勝利로鎭靜

(墨西哥二日發) 墨西哥에在한宗敎騷擾는政變等의直接的危機를보지안코一段落을告하야政府側의勝利로써事態는鎭靜에도다갓더라

有始無終 所謂亞細亞民族大會 너저분한事項決議하고 그대로閉會!

(長崎電) 最終日의所謂亞細亞民族大會는三日午前十一時三十五分에開會하야委員長부우쓰(印度)氏가昨日委員會經過를報告하고異議업시可決後同氏로부터緊急動議로

一、亞細亞運動功勞者表彰 阿富斯坦王、波斯王、土耳其大統領『케말파샤』印度詩聖『타고르』頭山滿、犬養毅外數名
一、長崎市民에謝意를表할件
一、本聯盟의目的達成에助力한白人과提携의件

의提案이잇서또이를可決하고理事推薦에入하야는議長指名에一任하야今里議長으로부터中國二名、印度三名、比律賓一名、阿富斯坦一名、日本二名의八名을指名하고남어지十七名은理事가銓衡하기로決定하고서는議事를終了하야여버리고各代表演說에入하야中國、印度、日本의各代表의演說이잇고最後에田中盛平의閉會辭잇슨後그대로閉會하엿더라

阿富汗爾代表를 監禁同樣取扱 旅券안가진理由로

(東京電) 旣報全亞細亞民族會議에出席하려고渡日한『아부카니스탄』의『푸라다푸』는겨우今里代議士等의盡力으로大阪에上陸을許可하엿다然한데內務當局은大阪警察部에打電하야上陸은許可하더라도旅館으로부터조금이라도내여보내서는안된다고講演其他도一切식혀서는안된다그러나正金銀行의預金만은支拂하다는殆히監禁同樣의取扱을受하고잇슴으로全亞細亞協會代表는三日午前에松村警保局長을訪問하고

一、民族會議終了後同氏의講演을許可할事
二、『푸라다푸』氏의京都寺院參觀의希望을許可할事
三、出發期를延期하여주기를바란다

等의三條件을提出하엿는데內務省側은結局外務省側에서식그럽게군다고責任을回避하는바來八日天津에向하야送還하기로되리라더라

廢止키로한 卄個所警察署 ◇……復活하라고警告

(東京電) 政友會의菅原、熊谷、安藤、森의各代表는三日午前九時濱口內相을訪問하고二十個所의廢止決定警察署의復活、知事警察部長의處分、檢擧中止等三警告를提示한後官邸로若槻首相을訪問하야同樣의旨를述하고辭去하엿더라

關稅會議 顚末報告

(東京電) 芳澤公使는其後關稅會議에對한方策을協議하기爲하야連日外務省에서幣原外相等과協議를하는中이며五日正午에若槻首相은官邸로日置、芳澤兩氏를招待하고外務、大藏、農林、商工의各關係者가列席한後其報告를聽取할터이라더라

梅谷知事 辭表提出如何는 諸君想像에一任

(東京電) 三日午前九時內相 梅谷知事의用件은水害의狀況을報告키爲하야來한것이오도自己는詳細한報告를受한것이다 問知事가辭表提出하던지아니하던지는諸君의部下에屬한것입니다으로무엇이라고말하고십지안타다만諸君의想像에맛길수밧게업다云云

國防公債 利子引上

(普도二日發) 佛國國防公債의利子는一年滿期六分、六個月五分五厘、三個月五分、一個月三分六厘 各各引上하엿더라

水害救濟를 警察이突然禁止 道廳에서準備中이라고

忠北報恩郡報恩靑年會東亞分局本報支局主催로지난七月三十日槐山邑水害罹災民을爲하야一般에게同情을得코저하엿던바至三十一日에報恩警察署로부터突然히本報支局長을呼出하야方今道廳으로부터救濟策의準備中이니一般에게寄附請求는아니된다고함으로八月一日에報恩靑年會에서는臨時總會를열고開商協議한바會員의醵金으로써多少의同情金을槐山靑年會에보내기로하엿더라(報恩)

八月五、六日의 西鮮蹴球大會 壯觀이豫想되는

黃海道長淵靑年會主催第二回西鮮蹴球大會는八月五、六兩日間長淵靑年會運動場에서開催될터인데昨年第一回때도大盛況을이루고또平穩無事히經過하고또極力으로便宜를圖하고精神上으로主催者側에서讓步한點이多하다하야今年에는그聲價가各地에波及되여 一層參加團體가多하리라하며主催者로써는昨年보다도더一層圓滿히하고平穩과親睦으로써大會를맛마가하야幹部諸氏는모다머리를기우리고硏究한다는데아마도全鮮大會에比하여도遜色이無하리라고豫想한다더라(長淵)

汶山庭球大會 四日午後一時에 汶山俱樂部코트

汶山庭球俱樂部主催로四日午後一時부터同俱樂部코트에서長湍庭球團과庭球試合을한다는바汶山軍은年來의慘敗로을갑고저오던터이다去五月부터는庭球俱樂部를組織하여가지고以來會員이一心鍊習하는等最善의努力을다하여왓고成績을나타내엿는데今般試合에는期於코雪憤을하려고雨中도不顧하고每日猛烈히練習하는中이며審判도例年의成績을일치안토록더하는貌樣임으로今回試合은一般觀覽客의興味를주리라더라(汶山)

第一回 關西記者團總會 =第二日=

七月二十八日午前九時半에議長金公善氏로부터續會를宣言한後前日에繼續하야團員點考通信報告會計文簿審査報告等을맛치고委員會時에各委員이先擔한旅費와實費도計算하야團에서支出할件과昨年度創立當時에加入金반納付하고僞今것第一回事業費를納入치아니하는團員에게는最後督促通知를發하야八月末日外지에送金치안는同時에는義務가履行한團員으로認하고除名할事等을決議하고出席치못한團員으로부터書面으로써提案한件等을討議한後同十二時에停會하고直히紀念撮影이有하엿스며同午後一時노부터續會하야新事件을討議하엿는데

一、今八月一日부터日本長崎에서開催되는所謂亞細亞民族聯盟은그正體를認識할수無함으로此를反對하는同時에따라서自稱朝鮮民族代表라고同聯盟에出席하는人物은朝鮮二千三百萬民衆의精神과背馳되는人物로確認됨으로此亦否認한다는電文을發送하기로可決한바電文發送에對한一切手續은委員會에一任하고

二、宣川信聖中學校建築請負入札에對하야振拭하인朝鮮人에게는落札치아니하고高額으로入札한中國人에게落札되야合으로朝鮮人勞働者三百餘名은如此히되엿슴으로宣川勞働組合幹部들은當局者를尋訪하고前後事由를協議한結果當札은中國人에게엇스나勞働者는朝鮮人으로大部分使役하겟다고言明하고도其後事實에入하여는中國勞働者만을使役합으로再次前記勞働組合幹部들이信聖中學校當局者『함가룬』을차저가言實이不同하엿슴을質問하고歸來하던中가튼當局者인米國人『감부렐』이란者가『무엇하사람이하는일에야만이가무슨일이잇소』하고朝鮮人을侮辱하는暴言을하엿슴으로此를問한勞働組合側이同件하엿던新聞記者가크게憤慨하야當場에서『무엇이야만이냐』하고質問을하고歸來한事가有하엿슴으로도此는朝鮮民族을侮辱한것으로特派員金正連金秉求鄭應燁三記者를當席에서派送하야調査한報告를接受하고

三、小作問題調査의件과

四、官權을背信하고新聞雜誌를强制販賣하야言論機關에權威를喪失케하는事가有함으로此를積極的으로防止할件

五、本團第二回事業費를每團員이一圓式納付할事

六、第二回總會는安義으로할것

等을決議하고同下午七時에停會하엿다

新聞講演 午後九時부터

二十八日下午九時부터宣川基督敎靑年會舘에서京城、開社時派員金起瀍氏가新聞의由來와現在及將來에對한熱烈한新聞講演會가잇섯더라

=第三日=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續會하여米國人暴行事件에對한記者報告에依한後『감부렐』의暴言은(야만)을……저못한일이라고) 하엿슴은이라고否認하며直接此에關한勞組幹部와新聞記者는確實히聞하엿다고主張한다고報告하엿슴으로長時間동안甲論乙駁하다가結局失言으로認하고警告文을發送하기로決議하엿스며監督責任이잇는宣敎師『함가룬』은本團特派가訪問하엿슬時에甘言利說로써絕對로감부렐이가野蠻이라고하지안엇슬뿐만아니라朝鮮語로野蠻이라는말부터모르는사람이라고하며今朝勞働幹部가某某牧師가잇는데自己를차저와서그와가티世上에問題가되게한것은全然自己에過失이라고自服外지하엿다云云한과同一함을報告하엿는데此는『감부렐』보다도前後矛盾한者이라關西記者團은『함가룬』에對하야對한對價를可否하고對議하다가『함가룬』은過去에잇서外國人宣敎師로朝鮮人子弟敎育에不少한供獻이有하엿슬뿐아니라如此한問題가發生케되여슴도朝鮮人子弟를敎養할校舍建築으로由함이즉多少消失로看做하고말기로하엿스며警察官吏의越行에關한件과沿滿同胞生活問題에關한件等은對議하다가定刻인正午가되엿슴으로此問題等은委員會에一任하고關西記者團萬歲三唱으로散會하엿다더라(安州)

委員會

關西記者團第一回總會는別項報道한바와如히圓滿히二十九日正午外지終了하고今番새로選擧된委員會를宣川旅舘樓上에서開催하고總會에서任受한事項을對議하고常務委員을如左히選定하엿더라(安州)

常務委員 庶務金秉杰(安州東亞) 財務鄭應燁(安州開闢) 外務金公善(安州時代)

太乙敎聲討講演 五百聽衆이共鳴興奮

全北金堤郡白山面祖宗里에根據를두고數百의敎徒를가지고別別奇怪한手段으로農村의窮面임도不拘하고互額을搾取消費하는等其他社會에害毒이多大함에對하야隣面孔德靑年會에서調査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八月一日은所謂敎主姜甑山의祭日이라하야互額의祭費는勿論이오多數群衆이集會하는機會를利用하야孔德靑年會와白山프로靑年會와聯合하야當日午後八時半에敎堂區內에서文仲賢氏司會로聲討講演會를開催하자『太乙敎란何?』이란問題로하야『우리는社會的으로容恕할수업다詐欺團이오吸血消費團의太乙敎를撲滅하자』는말에群衆으로부터『옳소』를連呼하며場內緊張한가운데에次例로安平、文鳳鉉、李時顯、李鍾穆諸氏가登壇하야獅子吼를吐하고無事히閉會하엿스나場內場外를包圍한五百餘群衆은極度로興奮되어容易히解散치안코밤十二時가넘은後에도姜甑山의妻高姓女의집을에워싸고잇슴으로必竟警官이出動하야解散을命令하엿다더라(金堤)

黃州 松虫被害極甚

黃州郡에는旱災가甚하야農作物에도被害되엇거니와林野에는松蟲이九個面에蔓延되야被害面積이實로大正八年旱災時에比하리만큼一千五百町步이나被害되엿슴으로一般은이를救濟策으로郡當局……

安州炭礦만擁護 面民을無視하고 하다고立石、大尼面民 平南道當局을非難한다

安州郡大尼面萬城과立石面間에三、道路를明治礦業株式會社安州炭礦에서는萬城驛外지石炭을運搬하고저昨年度에道路使用許可를得하여가지고馬車軌道를敷設하게되엿는데當時에此로因하야民間土地에不少한被害가有하엿슴은무론이어니와其間에過重한負役外지民間에負擔식힌다는不平이藉藉하엿스나强한官權의밋해는民衆에忿淚가無所用으로結局軌道가完成되엿는데今年에至하여는去番水害로因하야前記軌道가破損되엿는데此를修繕하는데든二萬圓을民間에賦役을식혀매使用하고저民間에賦役을식히여서住民에血汗으로모아노은礫石(조악돌)을全部使用하며또한그軌道로因하야元道路에不少한被損을내어서一般通行에不便이勿論修繕負擔은結局民間賦役으로할다고一個營利會社를爲하야民衆을草芥視하는平南道當局을非難한다더라(安州)

黃州苹果 今年產出預想

黃州郡內에서産出되는苹果는內外國에서好評을밧음은一般이다아는바黃州郡內에栽培한數는六百餘町步인데今年에收穫은一百五十町步에서三十九萬貫假量은收穫되리라고豫想하엿던바去七月分에意外에風災로因하야四萬貫이나되리가損害를當하엿스나黃州果物共同組合에서調查한바에依하면거어도三十五萬貫은收穫하리라는바昨年度産出에比하면十五萬貫이나增加되고三十五萬貫에對한價格은二十八萬圓假量이라하며支那上海長春及哈爾濱等地로도多數히輸出된다더라(黃州)

◇金海留學生招待會 嶺南金海靑年會에서例年과가티第三回在外金海留學生招待會를來十五日午前十時부터金海私立合成學校階上에서催한다는데執行委員會에서는諸般準備에奔忙中이라더라(金海)

農村巡回講演 雲田靑年會主催

平北定州郡大田面雲田靑年會에서는農村啓蒙의目的으로夏期休暇를利用하야各地留學生과靑年幹部一同으로巡回講演隊를組織하야가지고左記日割에依하야巡廻講演을한다는데一般有志諸氏는만히後援하여주기를바란다더라(雲田)

日割及場所 八月五日大田面雲鶴洞 八月六日雲山洞 八月七日江西洞 八月九日雲山洞 八月十日興洞 八月十一日雲古邑 日雲田洞 十二日馬山面院西洞 十三日馬山面院東洞 十四日博川郡西面龍藤洞 十五日西面慶浦洞
演士氏名 金秉命 金正穆 金文日 康元善 朴允吉 朴錦根 朴龍俊

臨時總會流會 黃州果物共同組合

黃州果物共同組合에서는本月二日午前十時에黃州郡廳會議室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基本財產造成의件과聯合會에負擔金에件等을決議하고저하엿던바組合員이規則과가티集會치아니하엿슴으로流會되고말앗는데오는九日에緊急總會를開催하기로하엿다는데이會에는一般組合員은多數히出席하야流會의弊害가업게하기를바란다더라(黃州)

黃海機運勞組臨總

黃海道機運勞働組合에서는去月三十一日下午十時부터同會館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金德炯氏의司會로左記의諸般重要事項을討議한後同十二時頃에閉會하고이어서懇談과餘興外지잇섯다더라(海州)

△決議事項
一、給料에關한件 運轉手月給은最低四十五圓으로할事
一、勞働時間에關한件
一、解雇手當에關한件 雇主에게要求할것
一、道中賃金에關한件 道中賃金은運轉手가一切私用치말것

振威郡戶口數 六月末現在

六月末現在振威郡戶口及人口數는다음과갓다더라(平澤)

△戶口調査及人口表
朝鮮人 一一五八七戶 男三二九二〇、女三一四九六
日本 一七一戶 男三六六、女三〇二
中國人 四三戶 男一一三、女七
總計 一一八〇一戶 男三三三九九、女三一八〇五
出生男四六三、女三九六
死亡男二〇一、女一七五
新築家屋五二戶
廢滅家屋二一戶
空家四二戶

大田面夜學設立

平北定州郡大田面에서는爾來相當한敎育機關이업서恒常文化發展이他地方보다一層落後됨으로一般은늘遺憾으로녁이던바今番夏期休暇로還鄕한東京留學生金秉命氏의外金正穆朴龍俊三氏의熱誠과努力으로諸般準備가完了되야지난달二十五日부터本面金信穆氏宅에男女勞働夜學을設立하고六十名의無產靑年兒童을爲하야簡易한方法으로敎鞭한다는데더욱前記三氏가無報酬로熱心敎授하는바이엇다며一般面民有志人士들이稱讚을不已한다더라(雲田)

裡里에音樂會 少女會主催로

湖南線裡里少女會에서는當地有志諸氏의後援으로來中旬頃에音樂大會를開催하기로全州에方面에서音樂先生을聘하야熱心練習中이라는바其間모든經費는當地有志金內閑金琪坤兩氏의負擔으로大會의收入은公益事業에補用케하리라더라(裡里)

長湖院색별少年會 夏期演藝會開催

長湖院색별少年會에서는來七日八日兩日間同會舘內에서夏期演藝會를開催한다는데그種目은如左하다더라(長湖院)
第一部 演說班
一、朝鮮少年의環境과우리의使命
第二部 音樂班(順序未定)
第三部 演劇班
一、아!白衣少年들아覺醒하라
一、참된朝鮮少年이되자
一、決斷性이업는少年의末路
一、頹風의弊害
一、其他

新浦鰯漁盛況 압흐로더욱有望

咸南新浦港附近海岸에서는鰯魚前의大盛況을일우어가는바只今『정어리』漁業으로因하야實地調査에依하건데日本山口縣新潟縣朝鮮釜山元山城津各地로서來到하야作業中每日水揚高와各製肥料、油、工場을紹介하건데現在十七場所에係한漁業船은兩動船이三十七隻帆船이一百五十九隻이라는바每日平均四十樽假量捕得이오代金은每樽에自一圓八十錢으로二圓外지된다하며將來로豊富하리라고算한다더라(新浦)

夜學解散 仁川勞働少年少女會에서經營하더바

지난四月三十日에創立된仁川勞働少年少女會에서는一般無產兒童을爲하야七月十日부터各工場職工九十餘名을勞總會舘에모아熱心으로夜學敎授를식혀오든중八月三日에仁川警察署로부터突然히解散을命하얏다는데그理由는夜學許可가업다는것이라더라(仁川)

長湖院색별少年會와 少女同友倂合

長湖院색별少年會와少女同友會에서는去七月三十一日午後七時

商業組合落成 定期總會

春川商業組合은元來春川面司倉里七番地의二에서朝鮮式舊草葺家에서業務를經營하다가今般住淵里八八番地의二에新洋屋大建物을建設하야七月三十日竣工當日組合員二百十名出席下에組合長崔養浩氏司會下에定期十八回總會를開催하고左記各項決議와役員改選이有한後午後六時로부터落成紀念寫眞을박고盛大한饗宴이有하야午後九時에閉會하엿더라

△決議
一、大正十四年度決算承認의件
一、大正十五年度豫算承認의件
一、事業狀況報告
一、役員重要事項報告
△役員選擧
△役員改選 組合長崔養浩 監査役池奎南 黃道根 朴贊祜 許議員池奎汶 嚴中煥 金相鎬 朴秉勳 朴光熙 太應天 黃潤秀 白仁培 朴贊祜 尹熙再 朴奎煥 朴敎陽 崔奎大(春川)

元山埋立地 拂下入札 四日에施行

旣報=元山里埋立地의一部拂下入札은本月四日午前十時元山府廳에서行한다는대代金은一時納付와年賦納付의二種으로分하야年賦는大正十七年三月末日外지로한다하며關係書類는便宜上元山里海面埋築事務所에서閱覽에供한다더라(元山)

延安留學生親睦 (海州)

旣報 延安留學生親睦會에서는去七月三十一日下午二時南山峴禮拜堂內에定期總會를開催하고諸般會務를討議하는同時左記事項을決議한後任員을委員制로改定하얏다는데改選된委員氏名은如左하다더라
一、學術講演開催의件
一、延安個人庭球大會開催의件
△任員改選氏名 委員代表裴彰健 委員申鉉聲張庚星裴榮建洪健杓張命昌趙來炳 庶務部申鉉聲裴彰建 財務部趙來炳洪健杓 運動部張庚星裴瀅健 文藝部張命昌朴鉉一

養性學校同窓會 黃州

郡邑內에잇는私立養性學校에서는去七月三十日午前十一時에養性學校講堂에서第三回同窓會를開催하고會長洪性昌君의司會로諸般事項을討議한後因하야母校에發展策과彼此에感想談이잇슨後餘興會에移하야歡談移時하고母校萬歲三唱과午後三時에閉會하엿더라(黃州)

端川古靈靑年定總

咸南端川郡古靈靑年俱樂部에서는去七月二十九日午後八時에第八回定期總會를同俱樂部에다開催하고臨時會長金炳烈氏司會下에基本財産에對하야實行方法을討議한後今年부터는더욱一般社會의向上發展을圖하기爲하야復式會堂은모조리廢止하고一例迷信打破에努力하기로하고敎育界에有功한故地金秉獻氏를爲한招待宴을開催하기로決議하고同十二時에閉會하엿다더라(端川)

郡聯合棉作品評會

善山郡廳에서는지난三十日第一期棉作品評會를開하얏는데會場에서金基善代理小鉢庶務主任의開會辭가有한後興味잇는抽籤을行하야賞品授與式을終한後善山公立普通學校長의祝辭가有하고伊藤技手의簡單說明이有한後午後四時閉會하얏다더라(善山)

◇寸鐵◇

【全州】 全州署에서는勅令으로撤廢된白丁의稱號를呼出狀에外지特書하엿다가衡平社員의큰反感을샀다고 精神차려!
◇
【慈城】 邑內洞의人口가一千八百餘人에酒代가每日平均一人前에十八錢式된다나! 每日長醉李太白이만콘군
◇
【海州】 外國留學外지갓다온市內某富豪子弟는日前妓生을다리고逃走하다가發覺되여칼을맛고하엿다나 留學所得이이것뿐인가?

朝鮮靑年의覺悟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力拔山하고氣蓋世의氣槪을所有한者도靑年이오胸中에經國濟世의理想과抱負를蘊藏한者도또한靑年인지라奸雄한不羈의氣槪를稱하야天下의大衆을率率하는者도靑年이오不平不平이가득한社會를理想鄕으로引導할이도靑年인것은누구나다認치할事實이다
◇그러나우리朝鮮의靑年界를도라보고는慨歎치안키難하게되엿다此는抱負와理想이不足한도아니오한가지病根이잇스니即意志薄弱이다所向하든일이한번失敗되면落心千萬에目的을變更한다換言하면한번挫折한길에는한거름나아갈氣는못내고退步하거나或다른길을取하려한다는말이다
◇目標가分明히보히는以上에야退步나橫路할外닭이무엇일가 失敗하면곳나려나조심하야挑戰치못하나幼老도오히려取치못할바이어늘況靑年乎
◇進步와落伍는一步를進하는그곳에잇나니一步를退하는그곳에잇나니그곳을辨關이라稱한다큰일이나일이나를勿論하고반듯이目的이잇고目標가잇는곳이면반듯이難關이잇는것은定則이다
◇工이면工、商이면商가장自己의趣意에맛는事業을擇하야實行中目的을變치안코죽어도남이곳歐州의日이오勝利의一時이다
◇우리靑年中에는自己一個人의事業에失敗하엿다고目的을變更한이가잇다면不安하자마는그러탕은일에着手부터미는것이可할지니一個人의일에着手도圓過치못한處地에잇는者도失敗하엿지其以上을要求하리오近에서遠으로淺에서深으로易에서難으로가順理의法則이다
◇靑年은空想의樂園이다니그곳惡雜한생각이모다理想이라誤解치말나또는狂風의時代라니暴걸치는대로바람부는대로水가蹊의形體에따르는듯意志가變키쉬우니오직單純한理想과剛毅한意志로써무엇보다도爲先된은事業에서難關通過의法則을배워다려야하겟다(龍川桂鳳浦)

元山天靑의 復興總會 지난一日에

元山天道敎靑年會는過去二個年間여러가지事情으로因하야委靡不振의狀態에잇든바今般此를復興식히기爲하야去一日下午八時부터同敎會堂內에서復興總會를金容浩氏司會下에開하고委員六人과規則改正委員四人을左와가티選定한後閉會하엿는데日曜日午後一時부터開催할터이라고(元山)
△委員 朴敏觀 金容浩 金昌俊 李芝明 李相殷 金岡
規則改正委員 尹斗善 朴敏 金昌俊 金岡

汗浦엡웟靑年講演 聽衆二百餘의大盛況

平山郡金岩面汗浦里엡웟靑年會修養部主催로去七月三十一日午後九時에同里禮拜堂內에서修養部長尹興烈氏司會下에講演會를開催하얏는데張大仁君의나의故鄕이라는題目이有한後演士安鄭根氏의朝鮮人과農村이란題로朴泓鉉氏의現代思潮다는題로各其熱辯을吐하얏는데滿場聽衆의拍手聲은場內가떠나가는듯한大盛況을이루엇다더라(汗浦)

金池靑年任員會 全北

南原郡金池靑年會는創立된지數月間에一般任員諸氏의熱誠과地方有志의協助下에着着進行되든다는내時히一般會員의嚴肅浮靡의氣風을除去하고勤儉向學의思想을鼓吹키爲하야禁酒禁煙宣傳을勵行하는中去二十五日午前八時에該會任員會를臨時會舘內에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一、會費徵收에關한件
一、義捐金募集에關한件
一、各部豫算編成에關한件
一、秋季大運動會에關한件
一、消防事業에關한件 (南原)

海州留學生 親睦會臨總 諸般事業計劃

海州留學生親睦會에서는各地에散在하여잇는會員이歸省할期會하야지난一日上午十時부터同會館時總長南旭町正內女子普通學校에서開하고臨時議長宋南駿君의司會로各部報告와委員會決議事項報告가잇슨後左記諸般重要事項을決議하고同十二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學生親睦會開催의件 本月七日上午十時부터著社亭에서開催하되此에準備키爲하야準備委員十人을選定
一、學術講座開催의件 學術講座는數日內로開催하되準備委員宋南駿、崔昌奎、金翻을選擧하야一切事를一任함
一、蹴球大會開催의件 總會當席에서義捐金四十圓을募集하야今月來로開催하되準備委員으로蔣致模外五人을選定함 (海州)

勤儉貯蓄契總會 (善山)

勤儉貯蓄契에서는지난三十一日總會를開하얏는데會長馬顯寬氏司會下에理事金允培氏의決算報告가有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더라(善山)
△決 議
一、決算報告의件
一、會則改正의件
三、任員選擧의件
四、其他必要事項
△任員當選 評議員金鴻基申泰淵丁圭三宋秉湖愼守一 監事金鍾金瑗欽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Aug. 4th, 1926.

DAME NELLIE MELBA

New York Times

III

And she had, besides, musical instincts and abilities and ambitions—musical perhaps more than dramatic—that do not always go with the fortuitous possession of a great voice. An amusing instance of her ambition toward great achievements was her insistence upon singing the part of Brunnhilde in "Siegfried" with Jean de Resbke at the Metropolitan in 1896. Though that daughter of the god appears only in the last act, the strain of the part, to which her voice and style were utterly unsuited and she herself quite unaccustomed, caused her such injury as to force her retirement for toe rest of the season.

Since her years in New York she has been heard chiefly in England and in her native Australia. She did much for British soldiers during the war and won the title of Dame. She retires now from the stage; but it is hard to believe that one so fully endowed with vitality and interest in so many of the things that make the world interesting will not be heard from further in some way or other. She has plenty of American admirers who will not forget her.

英文欄 聲樂家『멜바』 (完)

三日午後六時頃 東京에激烈한大地震

震動激甚하야家屋倒壞多數

삼일 오후여섯시 이십분에 동경(東京)에 격렬한 대디진이잇서 쌍의진동이 격심하야 시내에는 도괴된가옥이 비상히 만한 모양이더라 (삼일오후여섯시삼십삼분발동경지급뎐보)

橫濱에도同時激震

被害가多大한貌樣이다

횡빈(橫濱)에도 가튼시간에 격렬한 디진이잇서 피해가 만흔모양이더라

大震災째 남은家屋도 多數倒壞되엇다

놀래여 집을뛰여나와대소동

삼일오후여섯시이십삼분의 동경의격렬한 디진으로인하야 시민은 크게놀래여 모다집을뛰여나와 큰소동이 이러낫섯는데 디진은약 삼분간계속되엿후 진정되엿스나 지난번대디진때남어잇든 가옥은 컨부도괴된 모양이며 민심은크게흉흉하더라(하관뎐보)

宇都宮에도强震

우도궁방면(宇都宮方面)에도 가튼시각에 강진이잇서진동시간이 길엇스나별큰일은업섯스며 대정십이년의대디진때보다는 감진이약하얏다더라(하관삼일오후칠시사십분발뎐)

避難民公園으로雲集

日比谷、上野、芝各公園으로

삼일오후여섯시이십삼분의큰디진이잇난뒤에는여진(餘震)은잇슬듯하나 시민(市民)의불안은 도모지풀리지아니하야 일비곡(日比谷)상야(上野)지(芝)등의각공원(公園)들차지하고시내의 조그마큼식한공원까지도 피난하는 시민들이구름가티 모혀들어동경시민들은진재긔분에싸엿더라(동경뎐보)

交通機關一時杜絶

약이십분후에야복구

삼일 강진으로인하야 동경시내의 뎐차는모다 운뎐을 중지하고 성선(省線)뎐차도운뎐을 중지하엿스며 건시의교통과 통신긔관은 일시컨부두절되엿섯다가 약이십분후에컨부복구되엿더라 (하관삼일발뎐보)

震源地는東京灣

◇中央氣象臺發表◇

중앙긔상대(中央氣象臺)발표에의하건대 삼일의디진은오후여섯시이십육분이십구초오에 발진되야 처음미동시간(微動)은륙초(秒)이요 가장큰디진폭(地震幅)은 십구『미리메돌』진동시간은 삼분이십초이며 성질은급강진(急强震)이며 진원디(震源地)는 동경으로부터남동편으로약사『키로메돌』목경진(木更津)으로부터 동경만(東京灣)의남부이며 태평양외측디진대(太平洋外側地震帶)의주맥의활동이라더라 (하관지급뎐보) (以上號外再錄)

蔚珍郡民의 支廳復活運動

도평의원이방금상경하야 맹렬히운동하는중이라고

강원도 울진군(蔚珍郡)에 사는 도평의원(道評議員) 장인환(張仁煥)씨는 울진군디방법원지텽(地方法院支廳)의 부활을 진정하기위하야 수일전에 경성에올라와 송사(松寺)법무국장의 귀임을 기다리고잇다는바 동지텽은원래울진(蔚珍)의 이군일도를 관할하든 울릉도(鬱陵島)와 삼척(三陟)을 관할하고잇든바 재작년의 행정정리(行政整理)에의하야 폐텽이되엿든바동디방의법률사건은경북안동(安東)지텽으로 이관(移管)되여 동디에서 안동까지는 사십여리나격한 디방이 잇슴으로 적지안은 불편을늣기게되야 폐텽이래로 관계디방민들은 부활운동을 계속하야 작년일월중고하강(下岡)정무총감에게도진정을 하엿섯다는바 금번에는 관계디방민사천여명의서명으로 진정서를 데출하고 극력으로운동중이라는데 만일에 진정한바가 허가되는날이면 지텽설치의 비용은 컨부주민들이 부담할각오라더라

安州强盜 檢事局送致

삼십일일에

안주군동면맹주리(安州郡東面孟州里)에잇는 김용긔(金容基)와김귀록(金貴祿)의두사람은 케사(祭祀)하기위하야지난칠월중순에안주성내(安州城內)에드러가서비밀히고치(䌸)를사가지고 도려가던 도중안주시내를 격한약오륙뎡가량되는탄현(炭峴)고개발우에 일으럿슴에 돌연히엇던자두명이 나라나서 강제로 맛고 자긔들은 잡견사취에관인데그네들이 고치를 밀매하기지고오는것을알고 뛰여왓스니 벌금을내라고위협함으로 그들은 마츰가진 돈이업다고한즉 그자들은 달려드러 김용긔의지갑을 강탈하야 현금십이원오십전을빼아서가지고또한김귀록을 붓들고 그몸에 집히감춘 현금십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다라난일이잇서서 안주서에서는 범인톄포에 로력하던중에 엇마전에 혐의자두명을인치하고 엄중히취됴한결과 그자들이 진범인으로판명되야 이래 취됴를마치고 지나간 삼십일일에 안주지텽검사국으로송치하엿다는데 그자들은텰산군참면 신곡동(鐵山郡站面新谷洞)에원적을 둔김봉천(金鳳仟)(三一)이란도동하는자와개천군중서면(价川郡中西面)에잇는 양을룡(楊乙龍)(三一)이라더라(안주)

桐華寺住持 非行說은無根

엇던자의모함

지난번모신문에 보도되얏던 달성군동화사(達城郡桐華寺)주지(住持)김월계(金月溪)씨가모녀자에게 부정한 행동을하엿다함은 컨연히 무매무지설이엿스며 컨자 그절에잇든뎡모(鄭某)가 그와가티한바 그내면에 뎡모는 거지은사장월허(渠之恩師張月虛)씨의상속인으로 그의유언에의하야 절에 드려노흘논삼두락(畓三斗落)을 드려놋치 아니하고 사채금(私債金)륙십원(六十圓)도 공문에의하야 자긔가절에 드려노흘것이로되 역시 드려노치 아니하고 도로혀사승(師僧)에게불온한행동을가젓스며 한층주지를 걸어경찰서에고소함으로 사법(寺法)에의하야 축출하엿든바 그감정으로서 금번에 컨연이 업는이와가튼사실을 수며내엿슴이 판명되엿다더라(대구)

告訴當한面長

피소사실부인

지난 이십칠일에 경산군안심면 동호동(慶山郡安心面東湖洞)김재진(金在鎭)(三)은 자긔 안해와가티 동면면장김문한(面長金文漢)외 사명을걸어 대구검사국(大邱檢事局)에 가택침입 급상해죄로 고소를 제출하엿는데 사실은 매우복잡한모양으로 긔자가 면장에게 탐문한바 면장은그사실을 컨연부인하며 말하되 만일지난 륙월이십삼일경에 나에게 마젓다하면 그후한달이나된 칠월이십오일에 이주일간 진단을 내여가지고 고소를제출할은 컨연부당한 일이라말하고 다시 그내용은 녀자들사리말다툼으로 그러한것뿐이며 면장안해도 마자서 면상에는상처가아즉조금잇는 모양이라 말하는바 이와가티 사실이된는 그내면에 어자긔는 다시고소를 제긔할작정이라하며 면민(面民)들에게 탐문한바에의하면 량편이 다마자서 들어누어 잇섯스며그와가티큰사실은 업다고 하는바검사국에서 여하히 결정될는지하회를기다리고잇다더라(대구)

差別的待遇로 朝鮮人教員奮起

일본인교원에게는려비를 만히주고조선인측은적다

不穩當한郡廳態度

긔보한바와가티 고창교육회(高敞教育會)로던혜지조(澁田惠之助)씨를강사로초빙하야 거월이십일일부터 십일간 보통학교교원강습회를 개최한바 타도(他道)에서까지 교원이운집하야대성황을이루고 삼십일에 마치는데보군내에잇는 조선인 교원들도 각각도라가라다가돌연히 일선인대우차별로 인하야 큰문데가되엿다는대 그자세한 내용은 컨부터 교원들의 강습회가잇슬때에 려비의지출을 일본인에게는후하고 조선인에게는 박함으로 조선인교원들은 불평이만엇섯든바 지난이십구일에 동군령서무계에서 보군 교원들에게는 려비를 주겟다고 려비청구서에 도장을 바더갓는데 삼십일에려비를 지출할쌔에 일인교원과가티 십오원이라쓰고 현금지출은 십이원밧게 아니줌으로 조선인교원들은 분개히여며 동군서무주임(庶務主任)평안사말부(平安寺末夫)씨를 당디송뎡려관으로 방문하야 서무주임은 이리저리 추탁하고 면회를아니하야 한시간동안이나 려관문밧게서 기다리든교원들은 더욱 분개하야강경히 면회를요구한결과 면회하게되야 금번강습회비에 대하야 일본인은 이십오원을주고 조선인은 십이원을 주는것이 일선인차별흉책이아니냐고물은즉 그의대답이일본인려관에매일니원오십전식이다도 오히려 부족하고 조선인려관은 매일일원이십젼식이면 넉넉하기째문에 실비를주라고그리케된것이며그중에십삼원은강습회비로쑨것이다고모호한답변을함으로교원들의 질문이맹렬하매평안사는얼굴에 로긔를씌이며 교원들에게 불경어를쓸으로 교원들은려비에만 차별이 잇슬쑨아니라 언어에도 차별이잇느냐 그리말기를 주의하라는고론박하니 서무주임은낙뭇부답함으로 그곳에서 해결을 엇지못할줄을안 교원들은 익일에군령에가서 말하기로하고 고묘로비등된분긔를참으며도라왓다더라

密議十五分에 郡守態度도突變

조선인측교원은일제히 러비를도로주고나왓다

익일오전구시에 군령에가서 군수와 서무주임을 면회하고려관표준에 차별을둠과 청구서에는 이십오원이라쓰고 십이원만 지

平壤에서열린 上海東京兩團歡迎蹴球戰 (圓內는東京對平壤高麗戰) (前에兩主將握手에瞬間)

平北慈城郡에 猛虎가出現하야

農牛九頭를몰어다가

하필우리고다섯필오죽여

평북자성군리평면소수(平北慈城郡梨坪面小蘇)에서 지난이십사일밤에 돌연히 대호가나라나서 목장에가두어둔 농우아홉마리를 뒤人산으로 몰고들어가서 다섯마리는 죽여노코 한마리는 잡아먹엇다는데 그중세마리는 어대로갓는지 알지못하며 이로인하야 일반의인심은 대단히불안하야 밤잠을 편히쉬지못한다더라

長野縣事件과 警官의蠻行

경관의망측한만행에 주민들의비난이자자

獸行未遂警部引致

이십일일이래로 일본상뎐(上田)경찰서로부터 이십여명의경찰관을 인솔하고장야현사건(長野縣事件)으로동원(動員)출장하엿던 장야현암촌뎐뎡(長野縣岩村田町)경부보는 죽하(竹下)경찰부장의세력을밋고북좌구(北佐久)「공핍」의 하녀풍변장(豐邊藏)에게강금하고그곳예기(藝妓)모(某)를려관으로 다리고가서 수행을 하라다가소동을 연출하든중 이것이 그곳자경단(自警團)원들에게알려지게되야 그들에게 모든메룹마진일이잇섯든바 이것이 삼십일일에 일으러 상뎐경찰에 알려지게되야 즉시소환(召喚)을 당하얏다는바 이번불상사건이 생긴이후 장야현 경찰계는 풍긔가대단히 문란함으로 주민들은 이에그게 혐오히망한다더라(상뎐뎐보)

牛車가顚覆墜落하며 乘客三人이一時에溺死

승객한사람은인신륙개월의절문녀자

수레를끌던황소도무하애쓰다가참사

長淵盤灘橋上의大慘事

황해도 장연군읍내(黃海道長淵郡邑內)로부터일리가량써러진 해란교(盤灘橋)에서는지난이십구일오후열시경에 달구지를 타고 자긔어머니의 케사에 참례하려가다가 일행네사람과 황소가튼 소까지 죽은사실이잇섯다는데 이케자세히 탐문한바에의하면 그달구지에탓든 사람은 황해도장연군장연면읍내리(黃海道長淵郡長淵面邑內里)오십구번디 호주사한장(史敎璋)의처허의연(許義淵)(三四)과 그의장남운남(雲南)(一二)과또십여일컨에출생한삼녀운봉(雲鳳)이와 또허의연의족하되는 그곳읍컨리(邑前里)호주 리신원(李信源)의처허청만(許成萬)(三三)합하야네사람으로보군장연면송계리해란교동(盤灘面松溪里盤灘橋洞)허의중(許義仲)의집에 허의연은 자긔어머니케사에 허청만은자긔조모의 케사를보다 친가에서왓든 달구지를타고 가다가 그와가티 참사한것인바 째는마침밤열시쯤이라 사방은 어둡고 멀리써러저잇는 농촌은 모다고요히면—문나라로갓슬쌔라누구한아 이런 참극을 구할수 업섯고 오즉 흉흉한 물소리만 이밤 컬막을 쌔트리엇다 연일 계속하야 오는비는 차츰차츰낫시물을 붓게하야 물은사정업시 다리를넘어 흙탕버려가는데 마참우차군은 얼근히 한잔먹엇든터이라 어두운밤이지만은 설마죽으랴하고 달구지를 모라수십간되는 다리를 불과두어간초입에 드러가서달구지박휘가『세멘트』다리번쳐에 쩌러저서사람싯은채로 달구지는 뒤집히여쇄서드러가 필경은 우차군꺼지도 쌔첫다 래도 행여나 살아볼가하여 허위커어리엇스며 달구지에 목을꼭졸다면 황소는 케가아모리 살고십허도 움지길수업시 모래바다에 쎌을 굿게박고 처량스럽게다리는 하날로향하고 고만죽고마럿다 그러고사람들은 모다써내려가고 차부만이헤염을처서 십여간이나 흙탕버려가다가 겻가에뛰여나와 겨우살고 운남이라는 열두살먹은아이가 역시그어머니를 구하라다가드되여 구치못하고 홈로사라낫슬쑨이오 그나머지 운남의모친과 십여일컨에출생한 사촌누이와 허청만은 고만치참히도 물의귀신이되고 마랏다 이금보를 접한 장연읍내홍련동(紅蓮洞)주민일동은 그밤으로 현장에달려가서 시톄찾기에 노력한결과 그곳서 일리가량이나 써려가는 포촌(浦村)압헤서 그이튿날칠월삼십일 오후여섯시경에야 비로소 겨우일은두사람의시톄를찾고 아직도어린아이의시톄는 찾지못하엿다는데 커자특순간에 멀리별한 운남의아버지 사현장은 자긔의 외아들이구사일생격으로 잔명을 보컨한것을 생각하면 불행중에도 그만치는 다행이지만은 장모의 케사가아니면 하는생각으로 분함이충련하야 커가인 송면면송계리허의중(許義仲)의집에가서해거를 하엿다더라(장연)

順川郡鳳鳴面에 無盡藏한石炭鑛

총독부기사의됴사결과

평남순천군봉명면(順川郡鳳鳴面)일대에 석탄이잇다하야 지난이십일부터 총독부소속 송촌(松村)기사이하 십명이 실디조사를행하엿든바 과연 예상이상으로 석탄이 무진장으로만코더욱 조사할여디가 잇섯슴으로 최초예뎡을 연장하야 됴사를더욱계속하는중인데 동기사의 말에의하면 오는구월경부터 채탄에착수하게되리라더라(평양)

漢聯紀念延期

시내인사동(仁寺洞)팔십사번디에사무소를둔 한양청년련맹(漢陽青年聯盟)은작년팔월사일에 창립된이래청년운동에 대하야 용감한분투를 부단히계속하야 오든바금년팔월사일이 만일주년임으로 그회간부들은 창립일주년긔념식을 거행하려하엿스나 세상의공긔가 심히불안하고 시절이분분한이째임으로 여러가지 관계상거행하려든긔념식은무긔로연긔하엿다고

急流에溺死

동모와건느다가

평남진남포 비석리(碑石里)일백오십오번디 김원풍(金元豊)(一九)은 지난이십이일 오후세시경에 룡강군대대면령곡리(龍岡郡大代面靈谷里)와동면마사리(麻沙里)와의 중간으로 흐르는 해창(海滄)을 그의 친구김인숙(金仁淑)외 한명과 더부러벗고 건느든바 급한물결에 거슬리어 한소리비명을울리우고마츰내익사하엿다더라(평양)

自殺코저 短刀自刎

원인은정신이상

시내병목뎡(竝木町)이십삼번디 강긔수(姜基洙)(二?)는지난이일 오후한시경에 칼로자긔의 인후(咽喉)를 찔러자살을 하려다가 그만목적을 이루지못하고 방금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에서치료를밧는중이라는데 경상이엿기째문에 생명에는 별로관계가 업다하며 자살하려한 원인은 정신(精神)의 이상으로 인함이라더라

漢江水位

廿二尺二寸

三日午前六時現在

한강(漢江)의수위는삼일오전여섯시까지에 가평(加平)십이척 상촌 려주(驪州)십칠척 룡산(龍山)이십이척이촌이고 현재춘천(春川)의 수위는 십삼척이촌이라더라

利川菊水旅館 千餘圓竊盜逮捕

리천일경에는초유의대적

지난이십일일 경긔리천군 읍내 국수려관(利川郡邑內菊水旅館)에서는 현금삼백오십원과 금시계(金時計)한개금지환(金指環)한개합하야 일천오십여원 가량을일은후 범인을 수색중이든바 지난이십팔일 양평군곡수장(楊平郡曲水市)에서 리천경찰서형사가거동불심자를테포하야취됴한결과 려주군금사면 금사리(驪州郡金沙面金沙里)에사는윤병희(尹炳熙)라는자로이자의소위인것이 판명되엿다는데 윤병희는 김명화(金明化)로 변명하고 컨긔국수려관에와서 일주일동안 고용을하고잇던중 주인업는틈을타서 그와가티 절취도주한것이라는데 사오일동안에 소비한금액이 일백이십여원이나 되엿다하며 리천경찰서도범으로는 처음잇는대적이라더라(리천)

高麗體育會主催 納涼音樂舞蹈會

오는칠일밤공회당에서 수입은그회의유지비로

仁川三社支局後援

인천(仁川)고려데육회(高麗體育會)주최와동아시대조선(東亞、時代、朝鮮)일보인천삼사지국(三社支局)후원으로오는칠일오후여덟시부터산근뎡(山根町)공회당에서 납량음악무도대회(納涼音樂舞蹈大會)를개최한다는바 동데육회로서는 성명이혁혁한조선유일의음악무도가(音樂舞蹈家)를망라하야일반관중의만족을 드리는 동시에인천데육회가 생긴것을 또한 일반에게소개하기위하야 대대뎍으로 모든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동데육회는 작년십월경에 인천의호시로 조직된회인데 과연송래데육회가 업섯든것은 실로유감이엇든바 다행히 일부청년유지의발긔로 동회가 인천에생긴것은누구나 기대하든바이며 동시에그회는 어데까지 유지하여야할것임으로 이번수입되는 금액은그회의 유지비에 충당하기로한다는데 일반유지는 입장의한표일지라도 만히동정하기를 바란다더라(인천)

二日夜需昌洞에 兄弟의싸홈으로 一風波

형수가락태한것이문데

이일 오후열시경에 시내수창동(需昌洞) 일백구십삼번디 김연렬(金然烈)의집에서는『족하의버릇을 엇더케 가르쳣길래형수(兄嫂)의락태(落胎)를식이느냐』고부르짓는 소리가울려나오며적지아니한 소동이 일어낫슴으로 그집문밧게는 구경군이구름가티 모혀들어일시는 혼잡을 일우엇섯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 탐문하건대 원래그집주인되는 김연렬은 형데가살아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그의형이 세상을떠난후에 김연렬은족하김원(金元)과 김연(金延)의형데를길러 오든중 음력으로작년십월에 지칠순(池七順)(二八)이라는 녀자를김원과 결혼을식인후 그들형데를 시내뎡동(貞洞)십이번디로살림을차려주어살리든터인데 김원과 김연의 형데는 어려서부터 형데간에그리화목지못하야 항상싸홈을하야오든중 며칠전에도 형데가 싸홈을하엿는데 그때에 아우되는김연이가 형의억개를 물어뜨더 상처를내엿는데 그때에 김원의안해 지칠순은 아이밴지 여덜달이되야잇섯든바 배속에잇든 아이가썰어젓다하야 지칠순의 친뎡올아비되는지모(池某)가술을만히먹고가서매부(妹夫)의삼촌되는김연렬을차저가서그와가티족하의버릇을잘못가르친것을힐책하며야료(惹鬧)를부린것이라더라

死胎를流産

인력거위에서

불향과가티 지모는 김연렬의집에가서 야단을하는 일방으로김원의안해지칠순은 삼촌의집에서 동태(動胎)가되야 알는형세가매우 위급함으로 김연렬은즉시부근광제의원(廣濟醫院)으로 사람을 보내여산파(産婆)김영신(金榮信)씨를 청하야다가 진찰한결과 아이는 미리부터류산(流産)이될것이요 결코이번 형데가 싸우는것을보고고 만락태(落胎)된것이아닌것이판명되얏다는바 산파가 도라간후에 지칠순은 동대문부인병원으로인력거를 태여보내든중사태(死胎)를가는도중인력거속에서 류산(流産)하엿다더라

短刀로役軍刺傷

東拓移民梅原의暴行

일반주민은극도로분개중

영덕군병곡면 사천동(盈德郡柄谷面沙川洞) 김영호(金永虎)의 집에 머슴사는 김천득(金千得)(二五)은 지난이십일오후 여섯시경에 사천보(沙川洑)부역 하는 장소에서 그동리 이백목십사번디에사는 동양척식회사이민 매원삼지조(梅原森之助)(三三)에게 칼을 마저양편발목을 상하엿다는데이제 그내용을 듯건대컨긔 매원은청실이 본시강악하고 조선인을 무시하는자로 작년십월경에도축산면 칠성동(丑山面七星洞)에서사람의 머리에 총을노은일까지잇섯는바이번에도 부역군들이일을마치고가려할지음황순업(黃順業)이란사람이논두수(畓)머로 인부가 왓나 점고하여보겟나 한즉 매원은 논이만흠으로도그리하지야니하여도무관하다하며서로말싸홈이되여유박컨이엿어나자것헤섯든김천득이가말리려하는것을자살로 쇠든라향으로모다만류하엿더니 다시주머니에서칼을내여량편발목을 멩분가량식이나 찔렷는고로 말리든사람들은 달려들어칼을빼아서 억거업새 버렷다는데 일반은 매원의소행을 극도로분개한다더라(영덕)

十六歲少年의 可憐한自殺

주림을못견되어 쇠커죽고마럿다

충북청주군현도면양지리(忠北淸州郡賢都面陽地里)에 거주하는오란식(吳蘭植)(一六)는 금월초일일 오후여섯시경에 신탄진텰교(新灘津鐵橋)아래 금강(錦江)하류에서 투신자살하엿다는데그 자세한 내용을 듯건대컨긔오란식(吳蘭植)은 원래무산소작인으로 생활난을 이기지못하야 칠팔식구가초근목피(草根木皮)로도 호구(糊口)하기를 난계이던바 금월일일에는 보리겨떡을 엇엇다는데 벽규는그재떡으로도주린창자를채우지못하야그어린동생에게계떡을난오어먹자가청하나 난위주지안음으로필경은어린형제싸홈이생기여 주린창자를 훔켜쥐고나무지게를지고강가에와서 어머니를부르지즈며 생활난의극도를 비관으로 통곡하다가참혹히쇠커죽엇다더라

免職當한巡查가 現職巡查에게暴行

폭행전순사는구금되엿다

지난이십팔일은 전북 남원군장날(全北南原郡市日)이라오래막켯던 도로(道路)도 개통되고 농박긔(農方期)도거의지내엿슴으로 여긔저긔에서 모힌장군은 여름장으로 처음잇향을 이루엇다 이날하오네시경부터남원시장의 한중앙에서 일대괴괴사가연출되엿스니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남원군 남원면하정리(南原面下井里)십사번디에본적을두고 현재수지면 호곡리(水旨面好谷里)에사는컨순사양해두(梁海斗)(三九)와 수지면 류암리김두섭(水旨面柳岩里金佑燮)사이에 사소한 싸홈이잇슴에 마침순찰중이던 김순목(巡察巡査金淳睦)순사가그부근을지나다가 엇던아이의 순사가다민과 싸혼다는말을듯고 타디방에서 전근온지 얼마아니되는순사는각면주재소순사의 안면을 알지못하야자격업시순사정복을입고잇는 량해두를 현직인줄만알고동관의동정으로 량해두의대면보존을위하야호의설명을하엿섯다 그러나 양해두는 김순사에게만흔모욕을 ㅎ하야 참피한디경에 일으매 수백의 정군은 인산인해를이루엇는중 또다시 능견민장(能見敏章)이라는순사가당도하야 됴정코저한즉 량해두는능견순사에게 여전히모욕을 더하며 두손으로 두순사의옷을 훔켜잡고 이리저리 쓰은즉 김순사는 구경삼이보든중 이 보도를 들은 남원서에서는 수삼 순사를 출동하야 겨우 진정시키고 량해두를 공무방해죄로 방금구금취됴중이라는데 일반은 남원에처음되는봄이라고한이야기거리가 되엿다더라(남원)

安岳殺人事件

피해자친족이 경찰서에와서야단

긔보= 황해도안악군 대원면 덕산리(黃海道安岳郡大遠面德山里)에사는 황익하(黃益夏)(三五)와 동군동면 당뎐리(棠田里)에 사는 김도성(金道成)(四二)이와 지난 이십륙일에 안악면사현리 어떤주뎜에서 술이취하야 싸우다가 김도성이가 황익하를무수히란타하야 사망케 하엿슴으로 재령지텽 검사와 안악공의가현장에출장하야 해부를 하엿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지난일일오컨 한시부터 약한시간동안이나 피해자 황익하의친족되는 나이사십세쯤 되여보이는남자가 안악경찰서에 들어와서 인치된가해자 김도성을좀보게 하여달라고 하며 김도성은 살인한자이니사형에처하여 달나고 야단을하다가 서원의제지로 집으로돌려보냇다더라(안악)

廣告 (名義訂正의件)

貴報二千九十八號本年七月十八日朝刊第二面三四段에記載된拳銃郡下의軍服靑年두名은千圓을提供하라金堤에서逮捕된靑年두명拳銃도押收한目下에事實이相違한바가잇삽기다 그逮捕된靑年두명은金堤署에서強盜罪로判明이되여法律의處分에係하엿으나該金堤署員이다시張皇될必要가업거니와其時그靑年의게威脅을밧은者는本人인바閔浚鎬氏으로써卒然히그갓흔일을當하매面如開柱하야生命이危急한時刻에此際는自然히漏出하야本面駐在所警官의活動으로두靑年이逮捕되는同時에適也鮮人巡査는出張不參而日巡査만임으로言語를通譯하기爲하야韓東柱氏를本人이請하야同行하는路上에서出張하엿든鮮人巡査가還來함으로써韓東柱氏는即時通譯의任을讓與하고現場光景을傍觀할뿐아니라同氏는元來同面院坪里區長으로良風會에는關係가업고良風會長은院坪里金洪變氏인것을誤傳이되여서良風會長韓東柱가後援하엿나고貴報에記載가되엿스나그靑年의逮捕에는本人의懷刦과警官의活動으로된것이오決코良風會와韓東柱氏의後援으로된것이아니온즉此를速히貴報上에正誤하시와社會上耳目에 嚴眞이되게하여주옵소서

大正十五年八月一日

全羅北道金堤郡水流面九月里 金成俊 告白

◇訂正 大正十五年七月十五日付第二千九十五號本報朝刊二面記事中『非難밧는牧師』『玄云의不道德이다되고』한記事는事實相違이기玆에訂正함(宜川)

運動競技

決勝戰은今日

中學野球朝鮮豫選決勝戰은四日午後三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京中對釜山商業戰으로열릴터이더라

中學野球豫選

京中3釜中0 大朝主催中等學校野球大會準決勝戰은三日午後二時十分京城運動場에서擧行京中對釜中戰은今岡球審京中先攻으로開戰京中一回二點二回一點을어들뿐으로兩軍善戰하야三對零京中勝開戰四時四十五分

釜商5龍中3 釜山商業對龍山中學戰은同日午後五時二十分須田球審龍中先攻으로開戰되얏는데釜商一三回에各一點式얻고龍中三回一點을엇고五回에二點을어더一點을利하얏다가七回에釜商一擧三點을어더白熱의接戰을演出한後八回에이르럿스나兩軍그後에得點이업서서八回末을進行中에日沒로因하야不得已釜商에勝을宣告하니엇가을게龍中軍五對三으로惜敗하다開戰七時四十五分